해외시장 개척 · 지식재산 창출 지원

전북도 · 전북지식재산센터,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식' 가져… 19개 기업 신규 지정

전북도와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8일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1 전북 글로벌IP 스타기업 지정식'을 개최하고, 기업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IP(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도내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기업당 연간 7,000만 원 이내에서 3년간 특허 · 브랜드 ·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28일까지 도내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했고, 서류(IP스펙트럼 진단 등) 심사 등 3단계의 세부 심사과정을 거쳐 농생명식품 · 지능형기계부품 등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19개 기업이 신규 지정됐다.

지난 2018년 글로벌 IP스타기업에 선정돼 2020년까지 3년간 맞춤형 IP지원을 받은 7개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지식재산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2018년부터 지원을 받은 전기전자제조 ㄱ사의 경우, 지식재산 등록이 2017년에는 국내 17개, 해외 1개였으나, 2020년에 국내 30개, 해외 5개로 증가시키며, 3년간 33억 원의 매출액 증가와 4억 원의 수출 증가 성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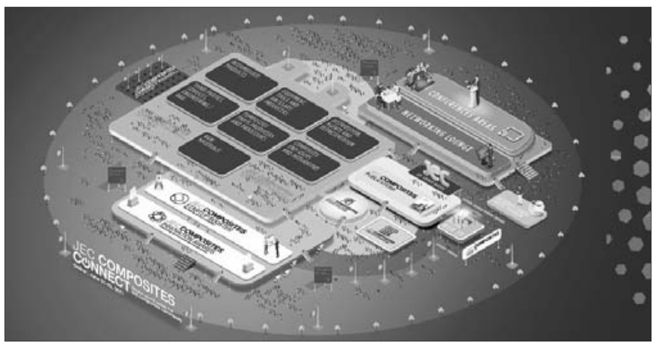
전북도와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8일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1 전북 글로벌IP 스타기업 지정식'을 개최하고, 기업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9년부터 지원한 기계금속제조 ㄴ사의 경우, 지식재산 등록이 2018년에는 국내 5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국내 10건 등록, 해외 2건 출원 중에도 매출액이 기존 대비 2배 정도 증가하고, 수출이 6배 이상 증가,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도와 전북지식재산센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해 마케팅,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IP금융연계를 활용, 기업의 지속적인 지식재산 창출과 성과 지속화에 힘쓸 예정이다.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북도와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활발한 지식재산 창출이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명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지식재산은 개방화 시대에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 척도"라며 "도내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함축돼 있는 지식재산 기반 제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 해외시장 개척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JEC 컴포짓 커넥트' 행사 디지털맵 이미지.

전북 탄소기업, 'JEC 컴포짓 커넥트' 참여

6월 1~2일 온라인 행사에 도내 10개사 참여 해외 시장 진출 도모 기대

전북도는 6월 1일부터 2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탄소복합재산업 글로벌 전시행사인 'JEC 컴포짓 커넥트'에 도내 10여 개 탄소기업이 참여해 해외시장개척에 나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올해 'JEC WORLD 전시행사'는 JEC 그룹(프랑스)에서 매년 세계 최대규모 복합재 전시회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최가 어려워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특히, 최신 IT기술을 접목해 전세계 탄소복합재 관련 1,200개 이상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는 도내 참가기업의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부스 운영 및 동시통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은 10개사(탄소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3, 탄소기업 7)로 ㈜나들, ㈜피치케이블, 마이팁, ㈜티엔케이, 씨디엘, ㈜비에스엠신소재, ㈜이지컴퍼지트, ㈜라지, ㈜해도, ㈜현대화이바 등이다.

참가기업들은 컨퍼런스, 강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 시장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홍보활동을 펼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K-뉴딜 선도 전략 논의

전북도,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정책 · 투자분과 회의' 개최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과 논의를 위해 전북연구원에서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정책 · 투자분과 회의'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은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 과제 대응을 위해 정책 · 투자, 관광개발, 수질 · 환경 분야로 운영중이며, 전북도, 전북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실무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정책 · 투자 분과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전북도의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새만금지역 K-뉴딜을 선도할 새로운 목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호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전 산업분야에 디지털 · AI 전환이 요구되고 있지만, 도내 ICT, R&D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매우 열악하다"며 "전북대학교 등 도내 주요 대학에서 연간 100여 명의 석 · 박사급 고급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적 자원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을 비롯한 적정 후보지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해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 기관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차세대 운송수단을 새만금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 지역에 버티포트 인프라와 디지털 항만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는 현재 경제 체질 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산업지도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며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수소 등 새로운 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만큼 제안된 사업들 적극 검토해 새만금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은 지난 2016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새만금 사업 단기과제에 대한 논의와 새만금 활성화 마련 등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치매관리 워크숍 개최

전북도가 지난 28일 치매환자 등 비대면 돌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광역 · 기초 치매안심센터 직원 대상 역량강화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으며, 광역치매센터 및 14개 시 · 군 치매안심센터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이 폐쇄돼 인지기능 저하자 및 치매환자 등의 돌봄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가를 초빙해 '기술이 돌봄이 되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스마트 AI로봇 ·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치매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활용 소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다가가는 '똑똑똑 마음두드림 상담기법' 강연도 이어졌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민간단체와 새만금 수질 보전활동 전개

5개 단체, 쓰레기 투기지역 꽃길 조성 · 환경 정화활동 등 진행

전북도가 새만금 수질을 깨끗하게 가꾸는 '새만금 수질 보전활동 지원사업(2021년 사업비 8,000만원)'을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한다.

도는 민간단체로부터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지난 3월 사업계획 평가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살리기 정읍시 네트워크, ▲강살리기 김제 네트워크, ▲강살리기 완주군 네트워크, ▲(사)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 ▲한국환경운동 실천본부 등 5개 단체를 선정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상류하천과 새만금호 등지에서 도민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살리기 정읍시 네트워크'는 태인천 주변 외인마을 등지의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가 자주 버려지는 하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

'강살리기 김제 네트워크'는 하천으로 버려지는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두월천 주변의 주민과 진봉초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참여형 교육과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한다.

'강살리기 완주군 네트워크'는 봉동여성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우산천의 수질정화 기능을 하는 식생 가꾸기와 정화활동을 한다.

'(사)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은 새만금 주변의 수질보전활동과 함께, 나만의 새만금 숨은 보석(명소)찾기를 통해 새만금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시민공모전을 31일까지 진행한다.

5개 단체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더 다양한 활동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사업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하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민 · 관 협력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새만금 수질보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